



운전면허증도 따고 복권1억에 당첨도 되고!

운전면허증을 소에 쥐고 나오면서 너무 기뻐 산 자치복권. 1억에 당첨되고 나서 최씨(31)는 한꺼번에 쏟아진 복에 정신이 얼떨떨했다

20대에 운전면허증 취득에 한 번 실패한 최씨는 30대에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했다.

“25살 때 딸려고 했는데 주행에서 성격이 급해 과속으로 두 번, 시동이 안 걸려 한 번, 그렇게 세 번 떨어지니까 화가 나서 포기했었어요.”

지금은 결혼해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최씨. 당장은 차가 아직 없지만 나이를 더 먹으면 따기가 힘들 것 같아 다시 한 번 면허증따기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20대의 성급함도 조금 누그러졌고 학원에서도 저번과는 달리 차근차근 가르쳐주어 딸 자신이 확실히 있었다. 필기시험도 한 번 치른 경험이 있어 3일만에 마스터하는 노하우도 알고 있는 터라 별 걱정이 없었다. 단지 면허증을 따고 나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 수 있게될 날이 빨리 오기만을 바랐다.

최씨 생각대로 면허증을 향한 행진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마지막 도로주행 시험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아줌마들은 몇 번씩 떨어져요. 필기도 한 번에 붙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한 번에 붙은 제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학원에 다니는 다른 아줌마들이 부러워서 난리들이었어요.”

최씨는 학원 사람들에게 면허증 탄 텃으로 음료수 한 박스를 사러 학원 근처 슈퍼에 갔다가 자신도 너무 기뻐 기념으로 자치복권10장을 샀다. 학원과 음료수를 마시며 열심히 굶는데 이게 웬일인가. 1억에 당첨된 것이 아닌가. 운전면허증을 따게 문제가 아니었다. 생각지도 않은 1억이 굴러들어온 것이다. 최씨는 어안이 병병해 가만히 있는데 주위 아줌마들이 더욱 흥분해 “최씨는 복이 넘을까 굴러들어왔다”며 “음료수 한 텃으로는 안된다”며 최씨의 복권당첨을 축하해주었다고.